

네 갈래 찢긴 동포들... 연해주는 슬프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유라시아 대장정

① 평화와 통일의 관문 '우수리스크'

전남도교육청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열차학교 동행 취재

러시아 극동 연해주는 서글프다. 이념 대립에 갇혀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를 외면하고, 네 갈래로 찢겨 서로의 길을 걷고 있는 한민족 동포들의 오늘을 그대로 보여준다.

강제이주의 아픔을 간직한 '고려인', 중국서 건너와 장사를 하는 '조선족', 외화벌이를 위해 꿈을 파는 '조선인민', 그리고 유라시아 드림을 꿈꾸는 '한국인'으로 갈라졌다.



전남도교육청 독서토론열차학교 참가자들이 지난 1일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이상설 선생 유허비에서 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남북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러시아 우수리스크=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헤이그 특사' 이상설 상해 임시정부 초대 재무장관 최재형이 잠든 땅 고려인·조선족·조선인민·한국인으로 나뉘어 서로 말 한마디 섞지않고 살아가는 아픈 현실 참가자 104명 "통일 이뤄 열차타고 다시 오자" 다짐

통일과 평화의 꿈을 품은 유라시아 대장정의 출발점이며, 휴전선에 가로막힌 대한민국을 대륙으로 잇게 하는 시작점이 바로 연해주다. 전남도교육청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열차학교와 함께 격동기 한민족의 궤적을 되돌아본다.

◇어찌 조국에 돌아가리="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한 내가 어찌 조국에 돌아갈 수 있느냐. 몸과 유품은 불태워 강물에 흘려보내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헤이그 특사'로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유언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20km 떨어진 우수리스크시 외곽 수이퐁강(江) 언덕. 이 선생의 유해가 뿌려진 곳으로, 무성한 수풀 한 칸에 자리잡은 이 선생의 유허비는 쓸쓸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아무 것도 없던 이곳에 2001년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이 유허비를 세웠다.

그의 유해를 삼킨 수이퐁강은 불었고, 소용돌이쳤다.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올분을 그대로 토해내

는 듯했다. 아니, 갈라진 조국을 꾸짖는 호된 질책이었다.

이곳에서 이상설은 '헤이그 특사'가 아닌 연해주 항일독립운동의 대부였다. 의병군을 창설하고 권업회·성명회 등 항일운동단체를 주도했다.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는 등 국권회복운동에 헌신하다가 1917년 오랜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의 나이 47세였다.

전남도교육청 독서토론 열차학교 참가자 104명은 유허비 앞에서 선생의 조국애와 독립정신을 기리며 헌화했다. 열차학교 하상규 교장과 성용상 학생회장이 대표로 헌화하고 목념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합창하고 손편지로 소망글을 띄웠다.

송미주 양은 "선생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평화롭다"며 "10년, 20년내 남북통일을 이뤄 고향 전남에서 이 곳까지 열차를 타고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재형을 아는가=연해주엔 또 한 명의 독립운동 대부가 있다. 최재형이다.



고려인 최초로 지신허의 러시아학교에 입학해 문학을 공부한 함경도 노비의 아들이다. 러시아 선장의 양아들로 입양된 후 타고난 사업 수완을 발휘, 군납과 건설로 연해주 최고 거부가 됐다. 안중근이 우덕순·조도선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을 모의하고 사격연습을 했던 블라디보스토크의 대동공보사 사장이었다.

'대한국인' 안중근이 여순감옥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보호했던 사람이 최재형이었다. 그는 연해주 항일의병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남아있는 재산을 미련 없이 조국의 독립에 쏟아부은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재무부장이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념의 벽에 갇혀 독립운동의 발원지인 연해주 독립운동을 교과서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들어갈 수 없는 그의 생각엔 대한민국 정부의 껍질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다.

◇광복에서 통일의 전초로=이상설·최재형을 뒷받침한 이들은 우수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들이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은 독립운동 기지이자 민족의 성전이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자 국내의 지식자들은 신한촌으로 모여들었다. 국권회복을 위해 필사의 결의를 다지며 성명회·권업회 결성, 한민학교 설립, 신문 발간, 13도의군 창설 등 이곳에서 민족역량을 길렀다. 191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망명정부인 '대한국민의회'를 수립해 대일항쟁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불행히도 1937년 스탈린에 의해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됐고, 신한촌은 폐허가 됐다. 지금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길이 없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서울스카야'(서울거리 2번지)다. 폐허에 가깝게 방치된 이곳마저 사라진다면 연해주에서 한인들의 자취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돼 마음이 무거워졌다.

/러시아 우수리스크=박정욱기자 jwpark@

내년 총선 '젊은 피' 수혈 경쟁

새정치, 공천 10% 청년 할당... 천정배 "젊은 DJ 발굴"

새누리, 호남서 기반 확대... '청년 공천' 적극 나설 듯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호남에서의 정치적 활로 모색을 위해 혁신 공천을 통한 대대적인 '젊은 피' 수혈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 민심이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새정치연합과 신당 세력 간의 한 판 대결이 불가피,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청년 공천'이 최대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에 새누리당도 호남에서의 정치적 기반 확대를 위해 청년 공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지난 9일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의 10%를 청년에게 할당하는 혁신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호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도 병행될 수 밖에 없어 청년 정치인들의 공천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일정 정도의 불감치는 있었지만 실질적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당시 청년이었던 정치 신인들이 장년이 된 상황"이라며 "호남 민심이 과

감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년 공천 등을 통한 세대교체 흐름이 강력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도 광주에서부터 차세대를 이끌 젊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발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천정배 의원 측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광주정신과 민심에 부합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적극 공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또 다른 신당 세력도 기존의 정치인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치 신인 영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의원의 당선으로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한 새누리당도 과감한 청년 공천을 통해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을 다져 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호남 출신 청년정치인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인예술시장 '별장'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별장'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된 대인예술시장이 2015년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에 선정돼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문화브랜드화 사업들 중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지역문화 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26개 지자체가 26개 사업으로 응모해 광주 대인예술시장 등 3개가 선정됐다. 부산 '월도심 창작공간 또따파가'가 대상을 받았다.

1959년 개장한 대인시장은 쇠락의 길을 걷던 중 2008년 지역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인시장 복덕방 프로젝트'와 광주시의 '대인예술시장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성공을 거두면서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골목벽화, 셔터 그림, 한 평 갤러리 등 예술가들의 작품이 시장을 찾는 이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고, 특히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대인예술시장 '별장'은 전국적인 인기와 함께 광주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됐다.

채영선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지역 예술가들과 상인, 지역 문화기획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버무려져 전국재래시장을 대표하는 대인시장이 만들어졌고, 지역문화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광복절 관련기사 2·3·7·16·22면

'오늘의 운세' 22면에 실습니다

광복 70주년 임시 공휴일
14일 목요일 신문 습니다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essence of luxury.
The all new Mercedes-Maybach 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ercedes-Maybach S 500 4,663cc, 2,333kg, 자동9단, 복합연비 7.9km/ℓ (도시연비: 6.6km/ℓ, 고속도로연비: 10.4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28g/km *Mercedes-Maybach S 600 5,980cc, 2,445kg, 자동7단, 복합연비 6.8km/ℓ (도시연비: 5.7km/ℓ, 고속도로연비: 9.0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26g/km
표준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무형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